

정밀화학산업 육성책 “내용 없다”

산자부, 실효성 없는 인프라 보강에 주력 ... 경쟁력 확보책 없어

정부 차원에서 정밀화학산업의 기술개발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비판이 많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사업에서 화학소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기술과 응용·산업화 기술 개발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핵심·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는데 우선 1998-2005년 약 409억원을 지원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중기 기술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 향후 중·장기 기술개발은 NT·BT·IT 등 신기술과 접목한 화학 신소재 및 공정개발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지원계획

단기과제(3년 이내)	중기과제(5년 이내)	장기과제(10년 이내)
○반도체용 화학소재 ○의약품 원제·중간체 ○기능성 첨가제·코팅제	○생리활성 신소재 ○평판 표시소자용 화학소재 ○에너지 저장용 화학소재	○유리대체용 투명기판 소재 ○치료용 신물질

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1999-2007년 동안 약 509억원을 지원해 현재 추진 중인 6개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화학소재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 성능·품질 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되는데 OECD GLP 수준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5년까지 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과 화학시험연구원(유해성 시험평가지원센터)에 2개 GLP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한편, <화학소재 신뢰성 평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 3개 기관 외에 전자재료시험연구원, 생활용품시험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화학소재 분야별로 신뢰성 인증·평가기관의 전문화도 추진한다. 또 2001년 4개에 불과한 화학소재 신뢰성 평가 품목도 2005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정밀화학산업 관련사업

구 분	사업기간	주관기관
분자설계 지역기술혁신센터	1999-2004	(사)분자설계혁신센터
고효율 합성/검색 등 신물질 창출 공동연구 기반	2001-2006	한국화학연구원
전자정보 등 정밀화학 기능성 소재 개발 기반	2001-2006	전남대학교
환경친화형 물질공정 기술혁신센터	2001-2006	순천대학교
화학물질 분석 및 규명 지역기술혁신센터	2001-2006	울산과학기술대 학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	2002-2007	경원대학교

정밀화학 전자상거래(B2B) 시범 사업으로 염·안료, 도료, 접착제, 계면활성제를 대상으로 2004년까지 23억원을 투입해 DB 표준화를 완료하고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산업기술 인력의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업종별·기술별 인력의 수급경로를 나타내는 <산업기술인력 로드맵>을 작성해 생산현장, 연구소 등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급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D/B 시스템도 구축한다.

<Chemical Journal 2003/05/19>